



## 추신수 신시내티 1번 타자·중견수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주포 추신수(30)가 신시내티 레즈로 이적했다.

CBS 스포츠 칼럼니스트 존 헤이먼과 포털사이트 애후 칼럼니스트 제프 파신은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애리조나 디아몬드 백스 세 팀이 추신수를 포함한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12일 트위터로 긴급 타전했다. 추신수는 신시내티와 1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블랜드는 먼저 추신수·내야수 제이슨 도널드와 현금을 얹어 신시내티로 보내는 대신 외야수 드루 스트립스와 유격수 디디 그레고리우스를 데려왔다.

이후 그레고리우스, 구원투수 토니 십, 1루수 라스 앤더슨을 애리조나로 보내고 우완 트레버 바우어·맷 앤더슨·브라이언 쇼를 받는 3:3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무려 9명이 엮인 복잡한 트레이드다.

### 클리블랜드 전격 트레이드 1년 계약

### LA 류현진과 꿈의 맞대결 펼쳐진다

중견수 겸 텁타자감으로 추신수를 짙찍은 신시내티와 추신수를 시장에 내놓고 투수를 원한 클리블랜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협정 시간 오후 8시 전격 트레이드가 이뤄졌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2006년 클리블랜드로 이적한 추신수는 이로써 세 번째로 유니폼을 갈아입는다.

줄곧 아메리칸리그에서 뛰어온 그는 내년 내셔널리그에 데뷔한다.

공격, 수비, 주루 삼박자를 갖춘 추신수는 2008년부터 클리블랜드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다.

빠른 발과 강한 어깨, 장타력, 정확성, 파워 등을 겸비한 5볼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올해까지 통산 타율 0.289, 83홈런, 373타점, 85도루를 기록했다.

2009~2010년 2년 연속 20홈런·20도루를 달성하고 아메리칸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성장했다.

주로 3번 타자로 나섰던 추신수는 올해 5월 중순부터 1번 타자로 출전해 타격 센스를 뽐내며 텁타자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이런 모습이 타선의 선봉에 설 적임자를 찾던 신시내티의 입맛을 총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새로 이적할 팀으로 포스트시즌에 올라갈 수 있는 빅마켓 구단을 선호한 추신수에게 신시내티는 크게 매력적인 구단이다.

신시내티의 올해 연봉 총액은 8220만 달러로 클리블랜드(7843만 달러) 보다 많지만 전체 30개 구단 중 17위일 정도로 풍족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명장' 더스티 베이커 감독의 지도력을 앞세워 올해 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을 정도로 조직력이 좋아 내년 추신수가 생애 처음으로 가을 잔치 무대를 밟을 가능성은 크다.

한편 추신수의 이적 소식을 접한 레즈 팬들은 '신시내티 킬러'가 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신수는 올해 신시내티와의 인터리그 경기에서 타율 0.407(27타수11안타)을 터뜨리며 펄펄 날았다.

/연합뉴스

### 프로 선수들 이웃사랑도 프로

## 광주 FC 김장 김치 담그고

## KIA 타이거즈 후원금 전달

광주 FC 선수들이 12일 마스크 차림으로 등장했다.

유니폼이 아닌 위생복을 입고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단을 찾은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김치 담그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조손가정, 시각 장애인 시설 등의 겨울나기에 필요한 김치를 담그기 위해 마련된 봉사활동이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여별규 감독과 남기일 수석코치 그리고 이승기·김동섭·박기동·김은선·박희성·김수범·이한샘이 현장에 투입됐다.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 광주 선수단은 매우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 담그기' 행사에 동참했다.

난생 처음 절인 배추를 접한 선수들의 표정은 긴장 반 호기심 반. 하지만 자원봉사자 어머님들의 솜씨를 따라 투박한 선수들의 손이 바빠 움직이자 이내 준비된 300포기의 배추가 맛있는 김장 김치로 재탄생했다.

이승기는 "올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팬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며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

사하니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뿌듯하다"고 특별한 소감을 밝혔다.

여별규 감독도 "처음 해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금방 일이 끝났다.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웃었다.

광주선수들의 이웃사랑 나누기 바톤은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이어받는다.

김진우, 안치홍, 김선빈, 한기주, 양현종, 박경태, 오준형, 심동섭, 김주영, 이별석 등 10명의 KIA 선수들은 1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뚜레주트(동립점)에서 불우이웃돕기 팬사인회를 열었다. 이날의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KIA는 앞선 10일과 11일에는 밝은 안과 21병원 MVP 적립금과 '왕뚜껑 홀리즌' 적립품을 각각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와 광산구 백선바오로의 집 등 2곳에 전달했다.

내야수 안치홍은 올 시즌 적립한 '2012 야구 꿈나루 1안타 1도루 후원금' 322만원을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기도 하는 등 지역 프로 선수들의 이웃사랑 나누기가 겨울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별규 감독(왼쪽)을 비롯한 이승기, 이한샘, 박기동 등 광주 FC 선수단이 12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단에서 '이웃사랑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 K리그 새내기들 신인선수 교육 받는다

2013시즌 그라운드를 누릴 K리그 새내기가 한자리에 모인다. K리그 신인선수 교육 '나는 프로축구선수다'가 13일과 14일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니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일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받은 1·2부 20개 구단 신인선수 177명을 대상으로 하며 ▲K리그 선수되기

(제도·규정·계약) ▲현대축구의 체력적 요구 수준과 자기관리 ▲프로선수와 SNS ▲미디어 트레이닝 ▲클린 뜻불! 클린 코리아!

축구 잘하는 법(法) ▲사상체질에 따른 자기 관리 ▲재무 설계 ▲신인선수를 위한 경기 규칙 ▲도핑방지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SBS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미디어 트레

이닝 강사로 나서고, 이용수 세종대 교수는 현대축구의 체력적 요구 수준과 자기 관리에 대해 알려준다.

정해상 국제심판(K리그 전임심판)은 경기 규칙을, 법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서는 부정 방지교육과 도핑 방지 교육을 각각 진행한다. 팬들과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한 강의도 이뤄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WBC 코치진 첫 회동

### 선수 구성 결정 못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끝으로 한 시즌을 마무리한 프로야구가 내년 3월 열리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향한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WBC 코치진은 12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의실에서 앞으로의 일정과 선수 구성 등을 논의했다.

김인식 기술위원장장을 필두로 류중일(삼성) 감독, 양상문 KBO 기술위원, 한용덕(한화), 박진태(전 롯데), 김동수(넥센), 김한수(삼성), 유지현(LG) 등 대표팀 코치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표팀은 2월 11일 모여 12일 전지훈련 인 대만 자이현 도큐구장으로 떠난다.

2주간의 훈련을 거쳐 티어1으로 이동해 3월 2일 네덜란드와의 1리운드 경기로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치진은 이 밖에도 훈련지에 미리 공인 구를 보내는 일 등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했다. 그러나 가장 큰 화두인 선수 구성과 관련해서는 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표팀은 지난달 12일 예비 명단을 발표했으나 주축 선수들이 연쇄 이탈해 준비부터 위기를 맞은 실정이다.

봉중근(LG)과 김광현(SK)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고 류현진(LA 디저스)과 추신수(신시내티 레즈)는 최근에 소속팀을 옮기는 등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대표팀 합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성인 & 신인맞이 Special  
신양고객감사 특별 상설 뷔페

일시 2012.12.24~12.25/12.31/새해 1.1 장소 호텔 1층, 스카이라운지

**특별 상설부페 요금**

|            |
|------------|
| 성인 ₩30,000 |
| 아동 ₩20,000 |

(부가세 별도)

**신양 스페셜 서비스**

점심 와인 한잔  
저녁 미니케이크 제공



Shin Yang Park Hotel  
MEMBERHIP HOTEL & FITNESS CLUB

문의 및 예약  
062) 221-4101 ~ 3  
062) 228-8000